

'장애자' 위한 책, 어떤 것들이 있나

이론서·창작집 등 30여종... '실용적 지침서'는 태부족

사회전반의 관심 반영

'88년 서울 장애자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다소나마 개선됨에 따라서, 장애자교육에 관한 전문도서와 일선교사 및 장애자들의 수기류 등이 서점가에서 꾸준히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장애자 관계도서에는 전문가들을 위한 이론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과 일선교사를 위한 장애자교육 안내서, 그리고 일선교사의 수기와 장애자들의 작품집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장애자들이 발표한 시·수필·수기들을 제외하면 이론서가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론서로는 「특수아동 조기교육」(한기정 지음, 보육사 펴냄), 「장애 유아의 발달과 교육」(박화문 외, 창지사), 「학습부진아교육」(박성익, 한국교육개발원), 「특수교육원리」(이태영, 대구대출판부), 「청각·언어장애아교육」(이규식 외, 형설출판사)을 비롯해 「정신지체아교육의 원리와 실제」(R.P. 잉걸스, 교육과학사), 「정신장애아교육」(S.J. 앵터, 星苑社), 「자아를 찾은 아이」(에이 진 에리스, 샘터)등 번역서까지 포함하여 20여종에 이르고 있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장애아 교육의 실재를 담고 있는 책들도 몇종이 서점가에 나와 있는데, 이들 책은 대부분 저자가 장애자를 직접 교육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정신지체아 교육기관인 성광학교(경기도 광주) 교장 황의경씨가 내놓은 「정신지체아의 이해와 교육」(홍익재)은, 정신지체아를 둔 부모들이 두려움 없이 자녀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 책. 「심신장애자는 이렇게 키워라」(에블린 에이럴트, 태웅출판)는 장애아의 심리상태, 부모들의 태도 등을 비롯해 장애아의 하루 일과를 부모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피고 있다.

놀이를 통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특수교육 교사와 부모에게 그 방법을 소개한 책들도 있는데, 「정신박약아의 놀이지도」(최영하, 형설출판사), 「기능훈련 프로그램과 교재연구」(강위영·최영하, 대구대출판부), 말더듬이의 원인과 치료법을 다룬 「말더듬 아동의 부모를 위하여」(에인즈워스·프레이저, 하나의학사) 등이 눈에 띈다.

장애자교육에 대한 전문도서와

수기, 창작집 등이 서점가에서 꾸준히 독자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보다 실제적인

내용의 책이 늘어나야 하며,

장애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크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각장애자 지도교사나 학부모들을 위한 手話 교재들로는 「수화의 길잡이」(손원재, 창록사), 「새수화교실」(문영진, 창록사), 「수화교실」(한국농아복지회, 수협사), 「우리들의 수화」(손천식, 동진문화사)들을 꼽을 수 있으며, 「韓英 수화사전」(김승국, 단대출판부)까지 출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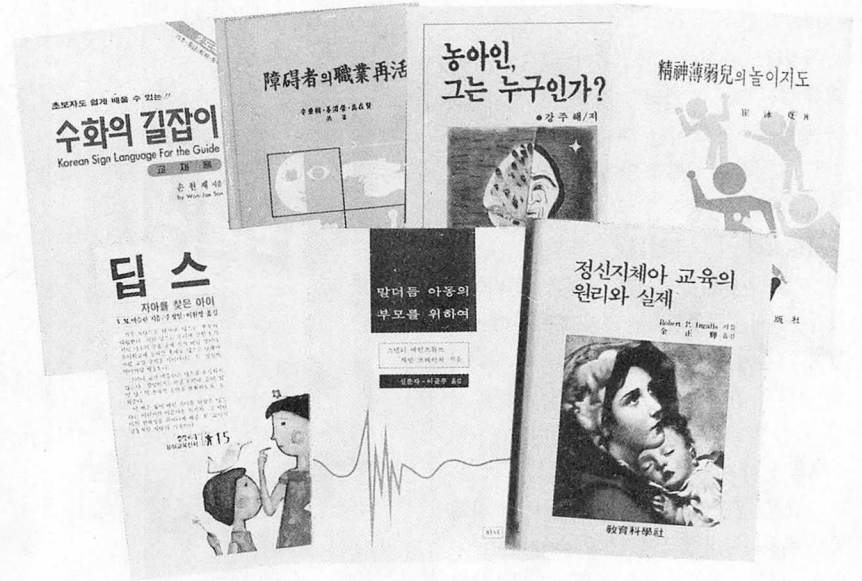
장애자 취업문제를 조명한 책으로는 「장애자의 직업생활」(안병집 외, 형설출판사)이 유일인데, 장애자 직업교육과 국내의 취업실태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일반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는 있으나, 장애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 아쉽다.

관심 끄는 일선교사들의 수기

장애자에 관한 이론서나 지도서가 일부 전문가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만 읽혀지고 있는데 비해, 일선 교육자들의 수기와 장애자 자신의 작품들은 폭넓은 대중적 관심을 끈다.

국내 교사의 수기로는 황의경씨의 「푸른 종소리」(홍익재)가 나와 있고, 따뜻한 사랑으로 자폐아를 돌보았던 한 교사의 감동적인 체험기 「러비」(메리 맥크라켄, 한마음사)도 번역 출간됐다. 자폐아 덤스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현직 교사의 수기 「덤스」(V.M. 엑슬린)는 샘터를 비롯해 학우사, 보성출판사 등에서 경합출판돼 있다.

그런가하면 장애자들의 수필과 시집들도 서점가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들 책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84~85년부터. 장애자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시집 「주예수님의 사랑」(송명희), 수필집 「진아의 방」(김옥



진) 등 10여종이 연이어 출간되면서 한때 붐을 이루었으나, 현재로서는 그 열기가 다소 식어 있는 상태. 그러나 최근 영락농아인교회 부목사 강주혜씨가 펴낸 수필집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창록사)는, 저자 자신이 청각장애 자로서 장애자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의 편견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새롭게 부추기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 주는 책, 더 많이 나와야」

그러나, 서점가에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지만 정작 읽을 만한 책은 많지 않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맹아교육기관인 강원명진학교 교사 이성남씨는 “점자도서나 맹인용 녹음도서는 특수한 제작기술이 요구되므로 차치해놓더라도, 맹아를 둔 부모나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읽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같은 장애자관계 책이라 하더라도 정신지체 쪽에 치중되어 있고, 오히려 신체장애에 관한 책은 부족한 형편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기도 하다.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이 분야 책들이 이론에만 치우쳐 있다는 데는 성광학교 황의경 교장도 의견을 같이 한다. “이론서라도 서구나 일본의 이론 및 사례들을 집중 소개한 것은 국내 교육일선의 사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직접 돌보고, 내 아이를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야 하는가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해가능한 일반 계몽도서들이 더 많이 출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상업적인 출판사로서는, 일반인들을 위한 계몽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뜻 나서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심신 장애자관계 도서를 집중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곳은 대구대학교출판부, 형설출판사, 창록사, 성원사, 홍익재 정도. 농아도서 전문출판사인 창록사의 대표 이원홍씨는 그 자신이 청각장애자로, “농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 그들의 실상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책, 그리고 재능을 지닌 농아인들의 창작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책을 펴내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그러나 전문출판사로서 수지타산을 맞추기란 아직 벅차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이다.

대구대 특수교육학과 여광웅교수도 “근래들어 장애자관계 도서들의 출간이 다소 활발해졌다고는 하나 외국에 비해선 아직 대단히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장애자 교육실태에 대한 1차적인 현장조사나 장애아 기르기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의 책보다는 외국의 이론을 번역소개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일선교사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론과 실재가 적절히 배합된 장애자관계 도서의 출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 아이나 자신이 장애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자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 장애자와 함께 사는 사회라는 일반의 인식이 보다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여러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오애리 기자